사고시각 지진파 왜 발생했나

사고시간 9시45분→30분→22분 오락가락

어뢰 무장 北 반잠수정 4척 기동 주장 계속

■ 국방부 해명…여전한 궁금증

서해 백령도 해상에 침몰한 천안함의 사고원인을 둘러싼 각종 의혹에 대해 국방부가 1일 뒤늦게 해명을 했지만 의혹은 속시원히 해소되지 않고 있다. 더욱이 한국지질자원연구원이 지진파를 탐지한 새로운 사실이 드러나면서 지진파를 발생시킨 원인이 무엇인지에 대한 궁금증이 증폭되고 있다.

국방부의 해명은 정확한 사고발생 시각, 속초함이 76㎜ 함포를 발포한 경위, 사고 전후로 북한의 반잠수정과 잠수함(정)의 기동 여부, 천안함이 사고 해상으로 기동한 배경, 신속한 초동조치 여부로 압축된다.

국방부에 따르면 천안함은 26일 오후 9시22분께 사고가 났으며 지질자원연구원은 오후 9시21분58초에 지진파를 탐지했다. 지진파의 진도는 1.4~1.5 규모의 폭발력이라고 지질자원연구원 관계자는 전했다. 이 폭발력이 기뢰나 어뢰에 의한 것인지는 앞으로 민·군 합동조사단의 조사 과정에서 규명되겠지만 그때까지 의혹은 계속 남게 될 것으로 보인다.

사고발생 시각이 오후 9시45분에서 9시30분으로, 9시25분으로 변경되다가 이번에는 9시22분으로 정정됐다. 사고 발생지점이 해군전술지휘체계(KNTDS)와 레이더 등에 좌표로 표시됐을 가능성이 큰데도 시간이 오락가락한 것은 군당국이 제대로 파악하지 못했음을 말해주고 있다.

이에 군 관계자는 "워낙 큰 사건이 발생하다 보니 이런저런 정보를 모두 취합했고, 그 과정에서 사고시각이 변한 것"이라고 말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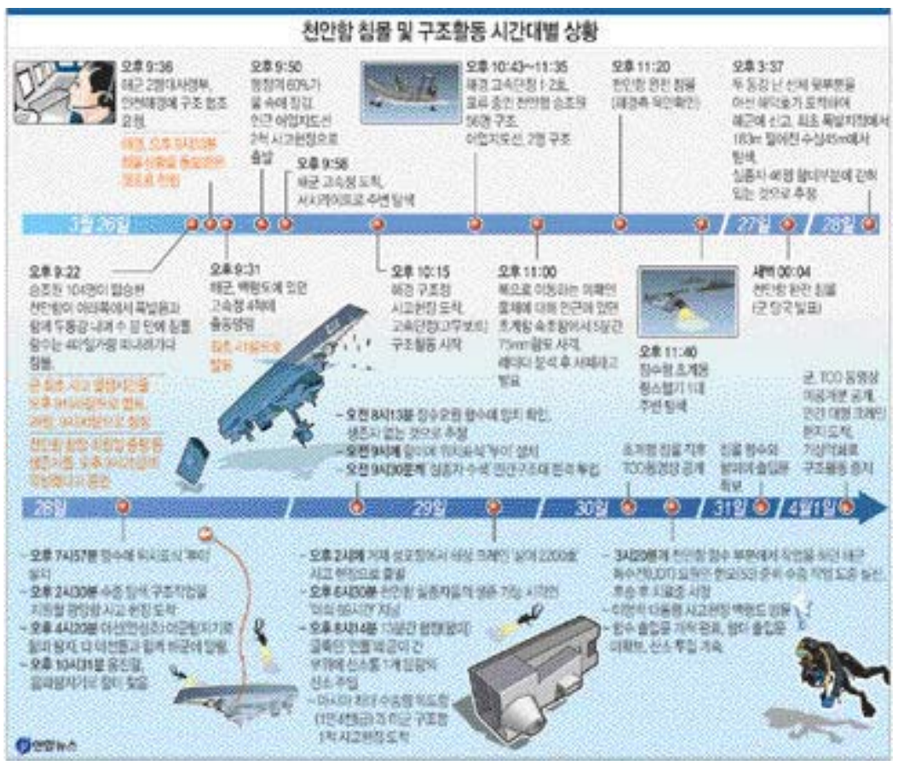
속초함이 새떼를 향해 발포한 경위도 나름대로 논리는 갖췄지만 백령도 주민들의 반응 등을 감안하면 논쟁은 가시지 않을 것으로 보인다.

평택의 2함대사령부는 천안함이 사고가 나자 A급 해상경계태세를 하달하고 현장에서 46㎞ 지점에 있던 속초함에 서해 북방한계선(NLL) 남단까지 전진하도록 긴급 명령을 하달했다. 사고 당일 오후 10시55분께 백령도 북방에서 42노트로 고속 북상하는 물체를 북한군 함정으로 판단했다는 것이다. 즉 천안함을 공격한 뒤 도주하는 북한군 함정으로 판단하고 사격에 돌입했다는 것이다.

하지만 사고 당시 북한의 반잠수정이 기동했는지 여부에 대해서는 명확한 설명이 없었다. 반잠수정은 어뢰 2발로 무장했으며 반잠수 상태로 기동하기 때문에 파도가 높은 날씨에서는 레이더에 잘 탐지되지 않는다는 것이 군 관계자들의 설명이다. 사고 당일 반잠수정 4척이 기동했다는 주장은 계속되고 있다. 특히 북한의 침투자산인 잠수함(정)과 반잠수정의 사고 당일 움직임 여부도 당연히 파악하고 있다는 것이 국방부의 설명이고 보면 북한지역 내에서의 기동은 있었음을 시사하고 있다.

천안함이 사고 해상으로 항로를 변경한 것에 대해서도 "북한의 새로운 공격형태에 대응해 지형적 이점을 이용한 측면"이라고 설명했지만 사고일을 전후로 어떤 도발위협이 있었는지는 여전히 설명되지 않고 있다. 더욱이 군은 이를 규명해줄 침몰함의 교신내용을 군사기밀과 작전에 관한 사항이라며 공개하지 않아 이를 둘러싼 논란과 의혹은 계속될 전망이다.

/연합뉴스



'쌍끌이 저인망' 실종자 찾는다 어선 12척 수색작업 투입

천안함 실종자 수색 작업이 기상악화 등으로 진전을 보지 못하고 있는 가운데 그물로 바다 밑바닥을 훑으며 어획하는 '쌍끌이 기선 저인망'이 수색 작업에 나선다.

1일 해군과 해경에 따르면 두 기관은 최근 인천 지역의 쌍끌이 어선 6통(12척)에 천안함 실종자 수색작업에 참여해 달라고 요청했다.

쌍끌이 어선은 2척의 배가 한 틀의 대형 그물로 바다 저층을 끌어서 조업하는 어선으로, 그물 크기에 따라 해저 100m 이상의 바닥까지 수색이 가능하다.

해경 측은 "해군 2함대에서 쌍끌이 어선을 투입해 수색작업을 한 번 해봤으면 좋겠다는 요청이 들어와 어선들을 섭외했다"라고 말했다.

해경은 군의 연락을 받고 지난달 31일 오후 대청도로부터 서쪽 30마일 가량 떨어진 해역에서 조업 중이던 동양 17,18호 등 쌍끌이 어선 12척에게 수색 협조 요청을 했다.

해당 어선들의 선장은 논의 끝에 잠정적으로 수색 작업에 동참하기로 결정, 조업을 중단하고 대청도로 피항했다가 기상 상태가 호전되는 대로 작업을 시작할 것으로 알려졌다.

동양호 박현중(53) 선장은 "쌍끌이 어선은 저인망으로 훑기 때문에 실종자를 찾는데 유리하다"며 "날씨가 좋아지는 대로 참여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쌍끌이 어선은 실제 조업 중에 가끔 시신을 인양하는 경우가 있어 천안함 실종자나 유류품 인양에 상당한 성과를 올릴 수 있을 전망이다. 쌍끌이 어선은 우선 사고해역 반경 5㎞를 중심으로 수색 작업을 벌일 예정인 것으로 알려졌다.

1일 오전 경기도 성남 국군수도병원에서 열린 고(故) 한주호 준위의 입관식에서 유족들이 오열하고 있다. 〈해군 제공〉

침몰 1주일…탈진가족 속출

무사 생환 실낱 희망속 軍 늑장 대처·부실 구조 원성

천안함 침몰 1주일째, 실종자 구조작업이 장기화하면서 생환소식을 애타게 기다리는 가족들은 지쳐 쓰러지면서도 희망의 끈은 놓지 않고 있다.

1일 경기도 평택시 해군2함대 사령부 실종자 가족숙소에서 모인 가족 200여명은 생존 한계 시간인 '69시간'을 훌쩍 넘기도록 생환소식이 없어도 무사생환을 기도하는 마음은 간절했다.

◇가족들 억장 무너져=지난달 26일 오후 서해 백령도 인근 해역에서 천안함 침몰 소식을 듣고 한걸음에 2함대로 달려온 가족들은 실종자 명단을 확인하자 주저 앉아 오열했다.

다음날 오후 2함대 강당에서 천안함이 침몰하는 과정에서 구조된 최원일 함장 등 4명의 승조원이 사고 상황을 설명하자 "믿을 수 없다. 작전해역도 아닌데 왜 그곳까지 기동했냐. 군 늑장대응 때문에 피해를 키웠다"며 거칠게 항의했다.

이후 2함대에 모인 가족들은 백령도 현지 가족대표단이 전해오는 소식에 촉각을 세우며 마음을 졸였다. 며칠 뒤 조류가 세고 현지 기상이 악화돼 구조작업이 중단됐다는 소식이 들려오자 탄식하며 낙담하기도 했다.

사고 발생 엿새째인 지난달 31일부터 현지 해역에 비까지 내리는 등 기상이 악화돼 생환소식을 기다리던 가족들 마음을 더욱 아프게 했다.

확인되지 않은 소식과 유언비어도 가족들 사이에 난무하고 있다.

지난달 31일 오후에는 한 언론사가 "실종자 46명 중 4명이 숨진 채 발견됐다"고 보도해 이를 본 실종자 가족 1명이 실신해 응급치료를 받기도 했다.

보도를 접한 가족들은 즉시 국방부와 2함대 측에 확인했고 국방부는 "시신이 발견된 바 없고 명백한 오보"라고 밝혀 놀란 가슴을 쓸어내렸다.

◇부실구조 대응=침몰사고 직후부터 구조작업을 하고 있다는 군 발표만 철석같이 믿었던 가족들은 백령도 현지에 도착해 또 한번 분통을 터뜨렸다.

구조작업을 직접 지켜본 김태석 중사의 매형 이용기씨는 "인명구조작업을 한다더니 침몰한 함수와 함미 위치조차 모르고 헤매고 있었다"며 군의 늑장대처를 질타했다.

또 천안함 함장이 침몰하는 함수에 '부이'를 매달아 위치를 표시했다고 발표했지만 함수 일부가 수면 위에 보였을때 빠른 조치가 안돼 군이 함수 위치를 찾는데 많은 시간을 허비, 결국 인명구조가 더욱 어려워졌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놓지 못하는 희망의 끈=가족들은 군의 주먹구구식 대처가 피해를 키웠다면서도 1%의 생존 가능성이 있는 한 한시라도 빨리 구조에 나서야 한다고 호소해 보는 이들의 마음을 안타깝게 하고 있다.

가족 대표 12명은 구조작업을 직접 보기 위해 1일 헬기를 타고 백령도로 다시 향할 예정이었으나 기상 악화로 취소됐으며 기상이 좋아지는대로 출발하기로 했다.

가족들은 "지금 이 시간에도 우리 아들, 남편, 형, 동생이 한 줌의 산소를 나눠 마시며 애타게 구조의 손길을 기다리고 있을 거다. 반드시 살아 있을테니 국민 모두 한마음으로 기도해달라"며 희망의 끈을 놓지 않았다.

◇탈진가족 속출=생환소식을 기다리다 지쳐 쓰러지는 가족들이 늘고 있어 주위를 안타깝게 하고 있다. 1일 의료지원단을 2함대에 파견한 경기도청은 이날 오후 2시30분 현재 실종자 가족 23명이 진료와 치료를 받았다고 밝혔다.

평택 안중백병원에는 지난달 30일부터 이날까지 총 9명의 실종자 가족이 찾아와 7명은 치료를 받고 돌아가고 현재 2명이 남아 입원치료를 받고 있다.

안중백병원 관계자는 "천안함 생존자처럼 실종자 가족들도 전문적인 보살핌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연합뉴스